주가지수 (pt, ¥) 종가 (등락률)
KOSPI 1,867.82 (+0.87%)
KOSDAQ 493.91 (+0.71%)
KOSPI200 선물 247.55 (+0.75%)
나케이지수 9,066.59 (+0.70%)
상해종합지수 2,229.19 (+0.14%)

비례에이션 (배) PER (12m fwd)
한국 (KOSPI) 8.6
일본 (TOPIX) 10.9
미국 (S&P500) 12.2
중국 (상하A) 9.1

주요 지표
투자 전략
추세 복원 가능성에 대한 점검 [최동환]

포트폴리오
금주 관심종목 삼성전기, 두산중공업, 한솔제지, 서울반도체
Daily 추천종목 삼성전기, 엔씨소프트, 고려아연, 대식GDS, 락앤락, LG생명과학, 하이록코리아, 이녹스, 인터파크

기업 분석
삼성전자 (005930/매수): 스마트폰 독주 시대 열지 않았다 [김영선]
LG디스플레이 (034220/매수): 적자생존 [소현철]
락앤락 (115390/매수):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다 [김정윤]

차트&수급 관심주
수급 특징주: 대패산업, 한화, SK네트웍스, 씨이제강
수급 관심주: 현진, 유한양행, 동원산업
추세 복원 가능성에 대한 점검

파생상품/기술적분석 최동환
(02) 3772-1796
dhchoi@shinhan.com

- 뉴욕 증시 중장기 추세선 지지 이후 단기 하락 추세선의 저항력에 직면한 상황
- 애플의 강세는 나스닥의 추가 상승 및 상승 추세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
- 주요 아시아 국가 중 일본 및 대만 증시는 하락 추세선 극복: 5월 초 수준까지 반등
- KOSPI 단기 하락 추세선은 1,890선: 국내 증시의 상대적 약세는 삼성전자와 원인
- 삼성전자 중장기 내부 추세선 저지: 상승 추세 유지되며 중기적으로 강세 전환 예상

애플의 강세에 주목하는 이유

KOSPI의 뉴욕 증시 대비 저조한 상대수익률이 지속되고 있다. 여타 글로벌 증시와 달리 뉴욕 증시는 최근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의 조건이 유지되고 있다. 4월 초의 고점에서 6월 초의 저점까지의 하락률은 10% 수준으로 평균적인 강세장 조정 폭이다. 또한 2009년 저점과 작년 8월의 저점을 이은 중장기 추세선이 훼손되지 않고 있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작년 8월의 저수 조정 과정 이 중기 추세선을 하향 이탈했던 점과 대비되는 부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S&P500 주봉, 중장기 추세선 지지에 성공: 강세장의 조건이 유지되며 반등 양상

자료: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S&P500, 1,375 회복시 상승 추세 복귀

S&P500의 일봉을 살펴보면 추세 복원을 위한 1차 저항선인 1,360선을 이틀째 상회했다. 4월 초 이후 형성된 하락 추세선은 1,375선 수준에서 저수와 교차하게 되는데, 종가 기준 1,375선의 회복은 단기 하락 추세선을 극복하며 상승 추세로의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유사한 흐름이 나스닥지수에서도 확인된다. 나스닥의 경우 단기 하락 추세선이 2,960선에 형성되어 있어 이미 저항력에 직면한 상황이다. 연초부터 3월까지 나스닥이 11년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대적/절대적 강세를 이어갔다는 점을 기억하자. 연초 이후 글로벌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나스닥의 강세는 여타 주요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다.

자료: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애플의 강세는 나스닥 추가 상승 가능성 높임

나스닥의 단기 하락 추세선 극복 여부와 관련해서 주목할 변수는 애플의 주가이다. S&P500과 나스닥의 저점은 6월 초에 형성되었는데 애플의 경우 5월 중순에 저점을 기록했다. 또한 나스닥에 앞서 6월 초에 이미 4월 이후 형성된 단기 하락 추세선을 극복했고, 6월 동안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 590달러에 형성된 저항선을 이겨냈다. 단기 하락 추세선의 극복, 중요 저항선의 상향 돌파, 새로운 중기 추세선의 형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나스닥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 증시, 나스닥과 유사한 흐름

나스닥과 유사한 호름을 보이는 독일 증시 또한 단기 하락 추세선의 저항력에 직면한 상황이다. S&P500 및 나스닥의 단기 하락 추세선 극복 여부와 더불어 독일 증시의 호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및 대만증시, 단기 하락 추세선 이미 극복

뉴욕 증시에 비해 상대적인 지수 하락 폭이 유난히 컸던 주요 아시아 증시들은 이미 단기 하락 추세선을 극복했다. 일본 증시는 6월 중순에 단기 하락 추세선을 극복했고, 5월 초의 주가 레벨까지 반등에 성공했다. 대만 증시도 유사하게 단기 하락 추세선을 극복하며 5월 초의 저수대까지 상승했다. 지수 반등 과정에서 KOSPI의 상승률은 일본 및 대만증시에 비해도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차트 1: 나케이 일봉, 3월 말 이후 형성된 하락 추세선 극복](차트)

자료: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차트 2: 가권 일봉, 3월 중순 이후 형성된 하락 추세선 극복](차트)

자료: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투자 전략

KOSPI, 하락 추세선은 1,890에 위치

200주 지수이동평균의 중장기 지지력은 확인

KOSPI 일봉에서 확인되는 단기 하락 추세선은 현재 1,890선에 위치했다. 6월 말의 지수 되밀림 과정에서 인텍스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의 급락이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약세를 유발했다. 하락 추세선인 1,890선 및 직전 고점인 1,900선이 밀접한 구간의 상향 돌파 여부가 추세 복원의 핵심이다.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5월 중순 및 6월 초의 저점인 1,780선이 200주 지수이동평균선(Exponential moving average)과 일치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년 8~10월의 지수 조정 과정에서도 200주 지수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중장기 지지선으로 작용한 바 있다.

자료: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KOSPI 일봉, 단기 하락 추세선은 1,890선에 위치

KOSPI 주봉, 200주 지수이동평균선(EMA)가 위치한 1,780선 지지

자료: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투자 전략

삼성전자의 내부 추세선에 주목

최근 지수 악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삼성전자는 증가기 내부 추세선의 지지력을 확인했다. 아래의 삼성전자 주봉 차트에서 위쪽에 위치한 평행선이 내부 추세선이다. 2009년 이후 내부 추세선의 지지 여부는 삼성전자의 상승 추세 유지 조건으로 작용했다.

내부 추세선의 지지 여부가 상승 추세 유지 조건


중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주도주 유지할 가능성을 높음

최근 실적 논란과 수급 공백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KOSPI 대비 악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상승 추세 유지 조건인 내부 추세선의 지지에 성공함에 따라 중기적으로는 주도주로써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본 애플의 상승 추세 복귀 가능성 또한 중기적인 흐름에서 삼성전자의 강세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2. 나스닥 및 독일 증시는 단기 하락 추세선의 저항력에 직면한 상황인데, 애플의 강세는 나스닥의 추세 속편 가능성을 높인다.
3. 주요 아시아 국가 중 일본 및 대만 증시는 이미 단기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했다.
4. KOSPI의 단기 하락 추세선은 1,890선에 위치한다. 최근 국내 증시의 상대적 악세 는 삼성전자 하락에 따른 영향력이 크다.
5. 삼성전자 주봉에서 확인되는 증가기 내부 추세선이 지지하고 있음에 따라 중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주도주 지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의 강세는 이를 지지한다.

<table>
<thead>
<tr>
<th>삼성전자 주봉, 113만원선에 위치한 증가기 내부 추세선의 지지력을 확인</th>
</tr>
</thead>
<tbody>
<tr>
<td><img src="image" alt="삼성전자 주봉 차트" /></td>
</tr>
</tbody>
</table>

자료: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금주 관심종목

### 삼성전기 (009150)
- 최대 고객인 삼성전자와의 신규 스마트폰 판매량이 호조세를 보이며 HDI, 카메라모듈, FC CSP, MLCC 등 전사업부문 실적 개선 지속
- IT용 MLCC시장과 삼성전기와 Murata에 의해 양분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2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

<table>
<thead>
<tr>
<th>추천일</th>
<th>수익률</th>
<th>상대수익률</th>
</tr>
</thead>
<tbody>
<tr>
<td>7월 2일</td>
<td>-3.8%</td>
<td>-4.5%</td>
</tr>
</tbody>
</table>

### 두산중공업 (034020)
- 1.9조원 규모의 사우디 얀부 3수밀화 발전플랜트의 이슈 부각시 부진했던 수주 부진으로 10.8조원 수주목표 달성 기대감 형성
-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로 하반기 수주 모멘텀 기대되며 2분기부터 실적개선 본격화

<table>
<thead>
<tr>
<th>추천일</th>
<th>수익률</th>
<th>상대수익률</th>
</tr>
</thead>
<tbody>
<tr>
<td>7월 2일</td>
<td>4.9%</td>
<td>4.1%</td>
</tr>
</tbody>
</table>

### 한솔제지 (004150)
- 하반기 풀오버가격 하향 인정, 유가 하락에 따른 화학 부재료비, 에너지비 감소 등으로 수익성 개선 전망
-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예상, 2012F PBR 0.4배로 저평가 메리트 부각 기대

<table>
<thead>
<tr>
<th>추천일</th>
<th>수익률</th>
<th>상대수익률</th>
</tr>
</thead>
<tbody>
<tr>
<td>7월 2일</td>
<td>0.8%</td>
<td>0.1%</td>
</tr>
</tbody>
</table>

### 서울반도체 (046890)
- 2011년 부진했던 TV용 LED패키지부문의 매출이 다소 상승하기 시작하며 점유율 회복 기대
- LED산업 홍보와 2011년 4분기로 실적회복 지속 기대, 가격하락과 에너지비용 절감 등에 따라 LED조명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전망

<table>
<thead>
<tr>
<th>추천일</th>
<th>수익률</th>
<th>상대수익률</th>
</tr>
</thead>
<tbody>
<tr>
<td>7월 2일</td>
<td>3.3%</td>
<td>2.3%</td>
</tr>
</tbody>
</table>

* 상기종목은 단기적 시장상황을 고려한 리서치센터의 추천종목이며 상대수익률은 KOSPI, KOSDAQ 대비 수익률입니다.
* 당사는 삼성전자와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를 발행하였으며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당사는 두산중공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를 발행하였으며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신규추천: 없음

편입종목

| KOSPI – 대형주 | 삼성전기, 엔씨소프트, 고려아연 |
| KOSPI – 중소형주 | 대덕GDS, 락앤락, LG생명과학 |
| KOSDAQ | 하이록코리아, 이녹스, 인터파크 |

* (제외) 네패스(시세부진, 수익률 -1.0%, 상대수익률 -3.0%), 이노와이어(시세부진, 수익률 -0.4%, 상대수익률 -2.4%)

- 상기종목은 단기적 시장상황을 고려한 투자분석부의 포트폴리오로서 기업분석부 장기투자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업내용의 변화 등으로 인해 투자견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운영은 30일 이내이며, 15% 이상 하락할 경우 해당종목은 Stop Loss 규정에 의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됩니다.
- 실적 전망과 관련 *는 FnGuide 컨센서스이며 **는 회사 Guidance입니다.
- 당사는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ELW를 발행하였으며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당사는 엔씨소프트, 고려아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발행하였음을 고지합니다.
포트폴리오

KOSPI - 대형주

| 삼성전자 (009150) | ▶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 호조로 HDI, 카메라모듈, FC CSP, MLCC등 전사업부문 실적 개선 전망  
| 추천일 | 7월 2일  
| 수익률 | -3.8%  
| 상대수익률 | -4.5%  
| 2011.12 | 매출액 60,318 | 영업이익 3,209 | 순이익 3,924 | EPS 4,474 | PER (37.1) 17.4  
| 2012.12F | 75,534 | 4,865 | 6,026 | 6,572 | 46.9 15.5  

| 엔씨소프트 (036570) | ▶ 6월말 블레이드앤소울의 OBT 예정, 4분기 금드워2 상용화 등으로 신작 모멘텀 재부각 기대  
| 추천일 | 6월 14일  
| 수익률 | 7.3%  
| 상대수익률 | 6.9%  
| 2011.12 | 매출액 5,002 | 영업이익 1,969 | 순이익 1,769 | EPS 8,126 | PER (5.0) 37.8  
| 2012.12F | 6,098 | 2,872 | 2,457 | 11,343 | 39.6 24.6  

| 고려아연 (010130) | ▶ 계절적 요인에 따른 기초금속 판매량 증가 및 재고조정을 위한 귀금속 판매량 증가로 2분기 실적 개선 전망  
| 추천일 | 6월 8일  
| 수익률 | 6.2%  
| 상대수익률 | 5.2%  
| 2011.12 | 매출액 55,564 | 영업이익 9,644 | 순이익 7,137 | EPS 37,596 | PER 46.7 8.1  
| 2012.12F | 58,498 | 10,472 | 8,061 | 42,338 | 13.4 9.0  

수익률 -3.8% (억원, 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 YoY PER

상대수익률 -4.5%
<table>
<thead>
<tr>
<th>KOSPI – 중소형주</th>
</tr>
</thead>
</table>
| **대덕GDS (004130)** | ▶ 스마트폰 고성장에 따른 고화소 카메라모듈용 RF PCB, 2011년부터 시작한 피처폰용 HDI 매출증가가 실적견인  
▶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용 HDI도 양상 기대되며 FPCB 신공장 증설 효과는 2013년부터 가시화될 전망 |
<table>
<thead>
<tr>
<th>추천일</th>
<th>수익률</th>
<th>상대수익률</th>
</tr>
</thead>
<tbody>
<tr>
<td>6월 21일</td>
<td>0.8%</td>
<td>2.7%</td>
</tr>
<tr>
<td>EPS</td>
<td>% YoY</td>
<td>PER</td>
</tr>
<tr>
<td>2011.12</td>
<td>4,173</td>
<td>254</td>
</tr>
<tr>
<td>2012.12F*</td>
<td>4,749</td>
<td>417</td>
</tr>
</tbody>
</table>

| **락앤락 (115390)** | ▶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상회하며 중국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 블식, 2분기에도 중국 사업 고성장세 이어갈 전망  
▶ 판가가 높은 유리 및 도자기 제품 매출비중 확대, 전사적인 인건비 상승폭 제한 등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 기대 |
<table>
<thead>
<tr>
<th>추천일</th>
<th>수익률</th>
<th>상대수익률</th>
</tr>
</thead>
<tbody>
<tr>
<td>6월 8일</td>
<td>4.2%</td>
<td>3.1%</td>
</tr>
<tr>
<td>EPS</td>
<td>% YoY</td>
<td>PER</td>
</tr>
<tr>
<td>2011.12</td>
<td>4,761</td>
<td>732</td>
</tr>
<tr>
<td>2012.12F</td>
<td>5,821</td>
<td>1,010</td>
</tr>
</tbody>
</table>

| **LG생명과학 (068870)** | ▶ 당뇨병 치료제 국내 품목 혜가, 혼합 백신의 WHO PQ 인증 등 신약 파이프라인 성과 가시화 기대  
▶ 수출부문의 호조와 진단 시약 등 신성장 품목 매출증가로 2분기부터 점진적인 실적개선 가능할 전망 |
<table>
<thead>
<tr>
<th>추천일</th>
<th>수익률</th>
<th>상대수익률</th>
</tr>
</thead>
<tbody>
<tr>
<td>6월 7일</td>
<td>12.8%</td>
<td>9.1%</td>
</tr>
<tr>
<td>EPS</td>
<td>% YoY</td>
<td>PER</td>
</tr>
<tr>
<td>2011.12</td>
<td>3,815</td>
<td>106</td>
</tr>
<tr>
<td>2012.12F</td>
<td>3,904</td>
<td>21</td>
</tr>
<tr>
<td>KOSDAQ</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히 Lok코리아 (013030)** | ▶ 석유화학,드릴십 등 육상과 해상 플랜트 시장 호조로 2분기 사상 최대 수주를 경신하는 등 수주 증가 지속  
▶ 스테인리스 등 고마진 제품 매출비중 증가로 수익성 개선되며 2012년 실적 큰 폭 성장 전망 | 추천일 | 7월 2일 |
| 수익률 | 4.8% | 상대수익률 | -5.8% |
| 매출액 | 1,428 | 영업이익 | 235 |
| 순이익 | 1,728 | % YoY | 8.6 |
| EPS | 2011.12 | PER | 9.9 |
| 2012.12F | 2,019 | 437 | 335 | 2,460 | 42.3 | 8.0 |

| **이 녹 (088390)** | ▶ 증설효과와 함께 FPCB업황 호조, 반도체소재 MS 상승, 2013년 OLED 등 신제품 개발로 최고 실적성장 기대  
▶ 결핵시S3 출시자연으로 2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하나 3분기부터 실적 모멘텀 재개될 전망 | 추천일 | 6월 29일 |
| 수익률 | -0.7% | 상대수익률 | -2.4% |
| 매출액 | 1,154 | 영업이익 | 92 |
| 순이익 | 1,070 | % YoY | -7.2 |
| EPS | 2011.12 | PER | 15.5 |
| 2012.12F | 1,617 | 264 | 198 | 2,231 | 108.5 | 9.0 |

| **인터파크 (035080)** | ▶ 공연, 무지컬부문 터치램던조 조호에 따른 ENT부문 실적개선 및 투어부문 취급고 증가로 이익 터어라운드 전망  
▶ 실적모멘텀 기대되는 가운데 아이미켓코리아 지분가치 부각, 적자 지하시범용통제 강화 진행되는 점도 긍정적 | 추천일 | 6월 28일 |
| 수익률 | 1.2% | 상대수익률 | -1.0% |
| 매출액 | 4,286 | 영업이익 | (95) |
| 순이익 | (192) | % YoY | 적지 |
| EPS | 2011.12 | PER | - |
| 2012.12F* | 4,663 | 287 | 140 | 230 | 총전 | 25.2 |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플의 상황이 그렇듯이, 삼성전자의 경우도 전반적인 시장 동향과의 관련성이 크다. 최근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고, 갤럭시의 판매량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소송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삼성전자는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불용해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2분기 영업이익은 QoQ 14.0% 증가한 6,67조원으로 사상 최대 예상 2분기 영업이익은 다램 가격 상승 및 LCD 패널 가격 안정화, 스마트폰 성장 세증에 함께 하여 QoQ 14.0% 증가한 6,67조원을 기록하여 다단 수요 회복에 더욱 확신을 가지며, 전자 영업이익은 스마트폰 성장(2억4백만대 예상, YoY 117.0% 증가)에 힘입어 YoY 67.9% 증가한 27.3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목표주가 1,700,000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2분기 영업이익을 소폭 하향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갤럭시S3 판매량이 분기 당 1,000만대를 상회하면서 전반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에 2012년 영업이익은 27.3조원으로 기존 추정치 수준을 유지한다. 연간 실적 추정을 기존 추정치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목표주가가 1,700,000원(2012년 예상 Forward P/B 2.2배)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전망

<table>
<thead>
<tr>
<th>(십억원)</th>
<th>2Q12F</th>
<th>1Q11</th>
<th>% QoQ</th>
<th>2Q11</th>
<th>% YoY</th>
<th>Cons</th>
<th>%차이</th>
</tr>
</thead>
<tbody>
<tr>
<td>매출액</td>
<td>50,438</td>
<td>45,271</td>
<td>11.4</td>
<td>39,440</td>
<td>27.9</td>
<td>49,937</td>
<td>1.0</td>
</tr>
<tr>
<td>영업이익</td>
<td>6,673</td>
<td>5,851</td>
<td>14.0</td>
<td>3,752</td>
<td>77.9</td>
<td>6,664</td>
<td>0.1</td>
</tr>
<tr>
<td>순이익</td>
<td>6,018</td>
<td>5,048</td>
<td>19.2</td>
<td>3,506</td>
<td>71.7</td>
<td>5,476</td>
<td>9.9</td>
</tr>
<tr>
<td>영업이익률 (%)</td>
<td>13.2</td>
<td>12.9</td>
<td></td>
<td>9.5</td>
<td></td>
<td>13.3</td>
<td></td>
</tr>
<tr>
<td>순이익률 (%)</td>
<td>11.9</td>
<td>11.2</td>
<td></td>
<td>8.9</td>
<td></td>
<td>11.0</td>
<td></td>
</tr>
<tr>
<td>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삼성전자 실적 전망 변경 비교

<table>
<thead>
<tr>
<th>(십억원)</th>
<th>2012F</th>
<th>2013F</th>
</tr>
</thead>
<tbody>
<tr>
<td>변경전</td>
<td>변경후</td>
<td>변경률 (%)</td>
</tr>
<tr>
<td>매출액</td>
<td>204,267</td>
<td>203,229</td>
</tr>
<tr>
<td>영업이익</td>
<td>27,643</td>
<td>27,276</td>
</tr>
<tr>
<td>순이익</td>
<td>23,828</td>
<td>23,525</td>
</tr>
</tbody>
</table>

부문별 매출액

<table>
<thead>
<tr>
<th>부문</th>
<th>2Q12F</th>
<th>1Q11</th>
<th>% QoQ</th>
<th>2Q11</th>
<th>% YoY</th>
<th>Cons</th>
<th>%차이</th>
</tr>
</thead>
<tbody>
<tr>
<td>반도체</td>
<td>40,188</td>
<td>38,325</td>
<td>(4.6)</td>
<td>48,048</td>
<td>45,209</td>
<td>(5.9)</td>
<td></td>
</tr>
<tr>
<td>메모리</td>
<td>23,553</td>
<td>22,006</td>
<td>(6.6)</td>
<td>27,155</td>
<td>24,893</td>
<td>(8.3)</td>
<td></td>
</tr>
<tr>
<td>비메모리</td>
<td>16,635</td>
<td>16,319</td>
<td>(1.9)</td>
<td>20,893</td>
<td>20,316</td>
<td>(2.8)</td>
<td></td>
</tr>
<tr>
<td>Display</td>
<td>34,175</td>
<td>34,497</td>
<td>0.9</td>
<td>35,283</td>
<td>35,283</td>
<td>0.0</td>
<td></td>
</tr>
<tr>
<td>통신</td>
<td>93,331</td>
<td>95,937</td>
<td>2.8</td>
<td>97,993</td>
<td>100,693</td>
<td>2.8</td>
<td></td>
</tr>
<tr>
<td>DM&amp;A</td>
<td>53,263</td>
<td>51,163</td>
<td>(3.9)</td>
<td>56,525</td>
<td>56,525</td>
<td>0.0</td>
<td></td>
</tr>
</tbody>
</table>

부문별 영업이익

<table>
<thead>
<tr>
<th>부문</th>
<th>2012F</th>
<th>2013F</th>
</tr>
</thead>
<tbody>
<tr>
<td>변경전</td>
<td>변경후</td>
<td>변경률 (%)</td>
</tr>
<tr>
<td>반도체</td>
<td>7,054</td>
<td>6,024</td>
</tr>
<tr>
<td>메모리</td>
<td>4,704</td>
<td>3,867</td>
</tr>
<tr>
<td>비메모리</td>
<td>2,350</td>
<td>2,157</td>
</tr>
<tr>
<td>Display</td>
<td>2,291</td>
<td>2,400</td>
</tr>
<tr>
<td>통신</td>
<td>16,267</td>
<td>17,012</td>
</tr>
<tr>
<td>DM&amp;A</td>
<td>1,988</td>
<td>1,857</td>
</tr>
</tbody>
</table>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 삼성전자 분기 실적 전망

<table>
<thead>
<tr>
<th>기업</th>
<th>분기 실적(십억원)</th>
<th>전년동기비대비</th>
<th>전월동기비대비</th>
<th>당기순이익</th>
<th>당기영업이익</th>
<th>영업이익률(%)</th>
</tr>
</thead>
<tbody>
<tr>
<td>삼성전자</td>
<td>매출액 154,613</td>
<td>36,986</td>
<td>39,440</td>
<td>41,274</td>
<td>47,304</td>
<td>165,003</td>
</tr>
<tr>
<td></td>
<td>매출원가 9,179</td>
<td>3,441</td>
<td>3,451</td>
<td>2,965</td>
<td>2,960</td>
<td>12,847</td>
</tr>
<tr>
<td></td>
<td>영업이익 9,177</td>
<td>5,889</td>
<td>5,500</td>
<td>5,549</td>
<td>4,177</td>
<td>22,707</td>
</tr>
<tr>
<td></td>
<td>영업이익률 11.2</td>
<td>8.0</td>
<td>9.5</td>
<td>10.3</td>
<td>11.2</td>
<td>9.8</td>
</tr>
<tr>
<td></td>
<td>순이익 16,145</td>
<td>2,785</td>
<td>3,506</td>
<td>3,442</td>
<td>4,051</td>
<td>13,734</td>
</tr>
<tr>
<td></td>
<td>EBITDA 29,107</td>
<td>5,977</td>
<td>6,833</td>
<td>7,606</td>
<td>9,565</td>
<td>29,980</td>
</tr>
<tr>
<td></td>
<td>EBITDA Margin (%) 18.8</td>
<td>16.2</td>
<td>17.3</td>
<td>18.4</td>
<td>20.2</td>
<td>18.2</td>
</tr>
</tbody>
</table>

자료: 신한금융투자

### Global DRAM Valuation

<table>
<thead>
<tr>
<th>회사</th>
<th>삼성전자</th>
<th>SK하이닉스</th>
<th>Micron</th>
<th>Nanya</th>
<th>Inotera</th>
<th>Powerchip</th>
<th>Elpida</th>
</tr>
</thead>
<tbody>
<tr>
<td>시가총액 (US$bn)</td>
<td>158.5</td>
<td>16.6</td>
<td>7.1</td>
<td>1.6</td>
<td>1.4</td>
<td>0.2</td>
<td>N/A</td>
</tr>
<tr>
<td>P/E (x) 2012F</td>
<td>8.8</td>
<td>19.3</td>
<td>N/A</td>
<td>N/A</td>
<td>N/A</td>
<td>N/A</td>
<td>N/A</td>
</tr>
<tr>
<td>P/B (x) 2013F</td>
<td>7.8</td>
<td>9.3</td>
<td>21.6</td>
<td>N/A</td>
<td>N/A</td>
<td>N/A</td>
<td>N/A</td>
</tr>
<tr>
<td>ROE (%) 2012F</td>
<td>21.1</td>
<td>8.9</td>
<td>-11.7</td>
<td>-325.1</td>
<td>-58.9</td>
<td>-226.2</td>
<td>N/A</td>
</tr>
<tr>
<td>ROA (%) 2013F</td>
<td>19.4</td>
<td>17.0</td>
<td>1.8</td>
<td>-211.6</td>
<td>-70.8</td>
<td>-2,237.4</td>
<td>N/A</td>
</tr>
</tbody>
</table>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 Global NAND Valuation 비교

<table>
<thead>
<tr>
<th>회사</th>
<th>삼성전자</th>
<th>SK하이닉스</th>
<th>Toshiba</th>
<th>Micron</th>
</tr>
</thead>
<tbody>
<tr>
<td>시가총액 (US$bn)</td>
<td>158.5</td>
<td>16.6</td>
<td>17.7</td>
<td>7.1</td>
</tr>
<tr>
<td>P/E (x)</td>
<td>2012F</td>
<td>8.8</td>
<td>19.3</td>
<td>18.8</td>
</tr>
<tr>
<td></td>
<td>2013F</td>
<td>7.8</td>
<td>9.3</td>
<td>10.2</td>
</tr>
<tr>
<td>P/B (x)</td>
<td>2012F</td>
<td>1.7</td>
<td>1.7</td>
<td>1.4</td>
</tr>
<tr>
<td></td>
<td>2013F</td>
<td>1.4</td>
<td>1.5</td>
<td>1.3</td>
</tr>
<tr>
<td>EV/EBITDA (x)</td>
<td>2012F</td>
<td>3.1</td>
<td>5.3</td>
<td>3.9</td>
</tr>
<tr>
<td></td>
<td>2013F</td>
<td>2.6</td>
<td>3.5</td>
<td>3.4</td>
</tr>
<tr>
<td>ROE (%)</td>
<td>2012F</td>
<td>21.1</td>
<td>8.9</td>
<td>7.4</td>
</tr>
<tr>
<td></td>
<td>2013F</td>
<td>19.4</td>
<td>17.0</td>
<td>13.5</td>
</tr>
</tbody>
</table>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 Global 비메모리 업체 Valuation 비교

<table>
<thead>
<tr>
<th>회사</th>
<th>삼성전자</th>
<th>Intel</th>
<th>TSMC</th>
<th>TI</th>
<th>AMD</th>
</tr>
</thead>
<tbody>
<tr>
<td>시가총액 (US$bn)</td>
<td>158.5</td>
<td>142.3</td>
<td>77.3</td>
<td>37.2</td>
<td>5.5</td>
</tr>
<tr>
<td>P/E (x)</td>
<td>2012F</td>
<td>8.8</td>
<td>10.6</td>
<td>13.9</td>
<td>16.4</td>
</tr>
<tr>
<td></td>
<td>2013F</td>
<td>7.8</td>
<td>9.9</td>
<td>12.8</td>
<td>12.4</td>
</tr>
<tr>
<td>P/B (x)</td>
<td>2012F</td>
<td>1.7</td>
<td>2.6</td>
<td>N/A</td>
<td>2.8</td>
</tr>
<tr>
<td></td>
<td>2013F</td>
<td>1.4</td>
<td>2.2</td>
<td>N/A</td>
<td>2.4</td>
</tr>
<tr>
<td>EV/EBITDA (x)</td>
<td>2012F</td>
<td>3.1</td>
<td>5.1</td>
<td>N/A</td>
<td>9.1</td>
</tr>
<tr>
<td></td>
<td>2013F</td>
<td>2.6</td>
<td>4.7</td>
<td>N/A</td>
<td>7.4</td>
</tr>
<tr>
<td>ROE (%)</td>
<td>2012F</td>
<td>21.1</td>
<td>25.6</td>
<td>22.2</td>
<td>16.7</td>
</tr>
<tr>
<td></td>
<td>2013F</td>
<td>19.4</td>
<td>22.7</td>
<td>21.1</td>
<td>20.5</td>
</tr>
</tbody>
</table>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 Global 휴대폰 업체 Valuation 비교

<table>
<thead>
<tr>
<th>회사</th>
<th>Apple</th>
<th>삼성전자</th>
<th>Nokia</th>
<th>HTC</th>
<th>LGE</th>
<th>Motorola</th>
<th>RIM</th>
</tr>
</thead>
<tbody>
<tr>
<td>시가총액 (US$bn)</td>
<td>580.7</td>
<td>158.5</td>
<td>15.0</td>
<td>15.0</td>
<td>10.9</td>
<td>11.8</td>
<td>7.0</td>
</tr>
<tr>
<td>P/E (x)</td>
<td>2012F</td>
<td>12.6</td>
<td>8.8</td>
<td>N/A</td>
<td>9.5</td>
<td>11.1</td>
<td>73.2</td>
</tr>
<tr>
<td></td>
<td>2013F</td>
<td>10.9</td>
<td>7.8</td>
<td>44.3</td>
<td>9.2</td>
<td>8.2</td>
<td>46.9</td>
</tr>
<tr>
<td>P/B (x)</td>
<td>2012F</td>
<td>4.6</td>
<td>1.7</td>
<td>0.7</td>
<td>3.1</td>
<td>0.8</td>
<td>2.4</td>
</tr>
<tr>
<td></td>
<td>2013F</td>
<td>3.5</td>
<td>1.4</td>
<td>0.8</td>
<td>2.8</td>
<td>0.7</td>
<td>2.3</td>
</tr>
<tr>
<td>EV/EBITDA (x)</td>
<td>2012F</td>
<td>7.1</td>
<td>3.1</td>
<td>N/A</td>
<td>6.1</td>
<td>5.6</td>
<td>26.9</td>
</tr>
<tr>
<td></td>
<td>2013F</td>
<td>6.0</td>
<td>2.6</td>
<td>3.3</td>
<td>5.8</td>
<td>5.0</td>
<td>22.1</td>
</tr>
<tr>
<td>ROE (%)</td>
<td>2012F</td>
<td>42.3</td>
<td>21.1</td>
<td>-15.9</td>
<td>32.8</td>
<td>7.1</td>
<td>2.4</td>
</tr>
<tr>
<td></td>
<td>2013F</td>
<td>36.3</td>
<td>19.4</td>
<td>-6.7</td>
<td>31.8</td>
<td>8.9</td>
<td>3.8</td>
</tr>
</tbody>
</table>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영찬). 동 자료는 2012년 7월 4일에 공표한 자료의 요약본 입니다.
LG 디스플레이 (034220)

매수 (유지)

현재주가 (7월 2일) 22,4000 원
목표주가 32,000 원 (유지)
상승여력 42.9%

소현철  이정엽
02) 3772-1594 02) 3772-1584
johns@shinhan.com jyuplee@shinhan.com

적합 생존(적자생존)

서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해외 경제업체 도태 진행 중

1999년부터 시작된 LCD산업의 치킨게임으로 해외 업체들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었다. 2012년 3월 말 기준 순차입금은 샤프 $104억불, CMI $92억불, AUO $56억불, LGD $25억불이다. 최근 화산의 엘리다 순차입금 $38억불을 비추어 볼 때 LCD업체의 재무구조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정부는 대한 LCD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할 전망이며, 샤프도 냉채(Niche Market) 전략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BOE도 고부가치 LCD와 OED 기술경쟁력이 한국 업계 대비 크게 뒤지고 있다. OED사업은 유기필름 등 화학산업에 대한 노력으로 주요 기업일에 대한 해외 기업의 모형화가 필요하다고 할 때도 범업계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산업우위에 있다.

고부가치 제품 판매확대로 3분기 영업이익 3,930억원 흑자전환 전망

2분기 영업이익은 740억원 적자를 예상되나, 미국 담합관련 충당금 1,900억원을 제외한 순원 영업이익은 1,160억원으로 추정된다. 3분기 아이패드3, 편광방식 3D LED TV 등 고부가치 제품 판매확대로 영업이익은 3,930억원으로 7분기만에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목표주가 32,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2008년 10월 금융위기 절정기에 동사 주가가 PBR 0.6배까지 하락하였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현재 벤어레이션 2012F PBR 0.7배는 합리적이지 않다. ▶ 글로벌 TV수요부진 속에서도 동사의 시장지배력 강화 ▶ W-OLED TV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선도 ▶ 3분기 영업이익 3,930억원 흑자전환을 고려해 목표주가 32,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012F PBR 1.1배, 2013F PBR 1.0배에 해당되며, 현 주가는 'Conviction Buy' 구간이다.
<table>
<thead>
<tr>
<th>실적변경 비교</th>
<th>2012F</th>
<th>2013F</th>
</tr>
</thead>
<tbody>
<tr>
<td>(십억원)</td>
<td>변경전</td>
<td>변경후</td>
</tr>
<tr>
<td>매출액</td>
<td>28,642</td>
<td>27,776</td>
</tr>
<tr>
<td>영업이익</td>
<td>468</td>
<td>357</td>
</tr>
<tr>
<td>순이익</td>
<td>329</td>
<td>235</td>
</tr>
<tr>
<td>EBITDA</td>
<td>4,968</td>
<td>4,857</td>
</tr>
<tr>
<td>영업이익률 (%)</td>
<td>1.6</td>
<td>1.3</td>
</tr>
<tr>
<td>순이익률 (%)</td>
<td>1.1</td>
<td>0.8</td>
</tr>
<tr>
<td>EBITDA margin (%)</td>
<td>17.3</td>
<td>17.5</td>
</tr>
</tbody>
</table>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소현철, 이정엽)。
동 자료는 2012년 7월 4일에 공표할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락앤락 (115390)

해반기로 갈수록 더 좋다

2Q12 매출액 1,473억원(+17.6% YoY), 영업이익 247억원(+58.7% YoY)전망
락앤락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6% 성장한 1,473억원을 기록한 전망이다. 중국 쪽 성장세가 2분기에도 지속되며 전년 동기 대비 31.0% 성장한 688억원의 매출 달성이 기대된다.

중국 전체 매출 비중에서 26% 이상을 차지하는 유리 제품 매출 호조와 전체 유통채널 비중에서 23%를 차지하는 홍شو달 매출 강세 지속이 성장률 이끌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8.7% 성장한 247억원이 전망된다.

하반기보다 상반기보다 더 좋을 것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좋을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국내 김장 수요가 있어 밀폐용기 수요가 증가하고, 틸람, 보온병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2월부터 베트남에서 가동한 유리 공장의 수율이 5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리 공장의 최대 수율을 60%로 형태하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유리의 안정적 공급이 연간 전자로 이루어졌다면, 영업이익률이 막대제 1%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좋을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국내 김장 수요가 있어 밀폐용기 수요가 증가하고, 틸람, 보온병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월부터 베트남에서 가동한 유리 공장의 수율이 5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리 공장의 최대 수율을 60%로 형태하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0,000원 유지

현재 락앤락의 주가 수준은 3일 종가 기준 PER 23.0배 수준으로 역사적 PER 범위 하단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동사의 투자포인트는 1) 중국 내에서의 락앤락 브랜드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 따른 높은 수요 2) 유리 및 도자기 제품 비중 상승으로 인한 평균 판매단가 증가 3) 하반기에 더 좋아지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모멘텀이다. 락앤락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0,000원을 유지한다.
## 연결 기준 분기별 실적 전망

<table>
<thead>
<tr>
<th>(십억원,%)</th>
<th>1Q11</th>
<th>2Q11</th>
<th>3Q11</th>
<th>4Q11</th>
<th>1Q12</th>
<th>2Q12F</th>
<th>3Q12F</th>
<th>4Q12F</th>
<th>2011</th>
<th>2012F</th>
</tr>
</thead>
<tbody>
<tr>
<td>매출액</td>
<td>108.5</td>
<td>125.3</td>
<td>122.7</td>
<td>119.7</td>
<td>124.1</td>
<td>147.3</td>
<td>160.7</td>
<td>150.0</td>
<td>476.1</td>
<td>582.1</td>
</tr>
<tr>
<td>국내</td>
<td>43.4</td>
<td>56.9</td>
<td>53.1</td>
<td>43.5</td>
<td>38.7</td>
<td>52.2</td>
<td>60.0</td>
<td>56.1</td>
<td>197.0</td>
<td>207.0</td>
</tr>
<tr>
<td>중국</td>
<td>52.2</td>
<td>52.5</td>
<td>55.9</td>
<td>51.4</td>
<td>64.6</td>
<td>68.8</td>
<td>72.2</td>
<td>67.2</td>
<td>212.0</td>
<td>272.7</td>
</tr>
<tr>
<td>동남아</td>
<td>8.8</td>
<td>11.5</td>
<td>9.5</td>
<td>15.1</td>
<td>12.8</td>
<td>17.2</td>
<td>19.1</td>
<td>17.9</td>
<td>45.0</td>
<td>67.1</td>
</tr>
<tr>
<td>매출총이익</td>
<td>53.4</td>
<td>57.4</td>
<td>63.7</td>
<td>60.7</td>
<td>61.0</td>
<td>70.6</td>
<td>83.2</td>
<td>78.0</td>
<td>235.2</td>
<td>292.8</td>
</tr>
<tr>
<td>영업이익</td>
<td>14.4</td>
<td>15.6</td>
<td>24.6</td>
<td>18.3</td>
<td>21.3</td>
<td>24.7</td>
<td>29.0</td>
<td>25.9</td>
<td>72.9</td>
<td>101.0</td>
</tr>
<tr>
<td>순이익</td>
<td>12.0</td>
<td>8.5</td>
<td>16.1</td>
<td>13.7</td>
<td>17.7</td>
<td>19.4</td>
<td>23.0</td>
<td>19.8</td>
<td>50.4</td>
<td>79.9</td>
</tr>
<tr>
<td>증감률 (% YoY)</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매출액</td>
<td>41.4</td>
<td>38.2</td>
<td>11.5</td>
<td>10.0</td>
<td>14.4</td>
<td>17.6</td>
<td>30.9</td>
<td>25.4</td>
<td>23.3</td>
<td>22.3</td>
</tr>
<tr>
<td>국내</td>
<td>21.7</td>
<td>2.9</td>
<td>(8.9)</td>
<td>(18.3)</td>
<td>(11.0)</td>
<td>(8.2)</td>
<td>13.0</td>
<td>28.9</td>
<td>(2.8)</td>
<td>5.1</td>
</tr>
<tr>
<td>중국</td>
<td>73.1</td>
<td>86.8</td>
<td>31.2</td>
<td>20.6</td>
<td>23.8</td>
<td>31.0</td>
<td>29.2</td>
<td>30.6</td>
<td>47.8</td>
<td>28.7</td>
</tr>
<tr>
<td>동남아</td>
<td>162.2</td>
<td>117.5</td>
<td>62.2</td>
<td>64.6</td>
<td>44.8</td>
<td>49.9</td>
<td>100.9</td>
<td>18.4</td>
<td>89.7</td>
<td>49.1</td>
</tr>
<tr>
<td>매출총이익</td>
<td>33.9</td>
<td>26.5</td>
<td>12.1</td>
<td>4.9</td>
<td>14.2</td>
<td>23.0</td>
<td>30.6</td>
<td>28.4</td>
<td>26.2</td>
<td>24.5</td>
</tr>
<tr>
<td>영업이익</td>
<td>7.0</td>
<td>(2.5)</td>
<td>(4.1)</td>
<td>(11.4)</td>
<td>47.5</td>
<td>58.7</td>
<td>17.9</td>
<td>42.0</td>
<td>(8.5)</td>
<td>38.5</td>
</tr>
<tr>
<td>순이익</td>
<td>(23.5)</td>
<td>(20.4)</td>
<td>(35.7)</td>
<td>(6.2)</td>
<td>47.8</td>
<td>127.4</td>
<td>43.0</td>
<td>44.0</td>
<td>(23.7)</td>
<td>58.7</td>
</tr>
<tr>
<td>증감률 (% YoY)</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매출액</td>
<td>49.2</td>
<td>45.8</td>
<td>51.9</td>
<td>50.7</td>
<td>49.2</td>
<td>47.9</td>
<td>51.8</td>
<td>52.0</td>
<td>49.4</td>
<td>50.3</td>
</tr>
<tr>
<td>국내</td>
<td>13.3</td>
<td>12.4</td>
<td>20.0</td>
<td>15.3</td>
<td>17.2</td>
<td>16.8</td>
<td>18.0</td>
<td>17.3</td>
<td>15.3</td>
<td>17.3</td>
</tr>
<tr>
<td>중국</td>
<td>11.1</td>
<td>6.8</td>
<td>13.1</td>
<td>11.5</td>
<td>14.3</td>
<td>13.2</td>
<td>14.3</td>
<td>13.2</td>
<td>10.6</td>
<td>13.7</td>
</tr>
</tbody>
</table>

자료: 신한금융투자

## 락앤락 Peers Valuation

<table>
<thead>
<tr>
<th>락앤락</th>
<th>삼광유리</th>
<th>RUBBERMAID</th>
<th>TUPPERWARE</th>
</tr>
</thead>
<tbody>
<tr>
<td>PER (배)</td>
<td>2010</td>
<td>26.3</td>
<td>13.1</td>
</tr>
<tr>
<td></td>
<td>2011</td>
<td>39.0</td>
<td>14.9</td>
</tr>
<tr>
<td></td>
<td>2012F</td>
<td>23.0</td>
<td>11.4</td>
</tr>
<tr>
<td></td>
<td>2013F</td>
<td>17.4</td>
<td>9.1</td>
</tr>
<tr>
<td>PBR (배)</td>
<td>2010</td>
<td>4.7</td>
<td>1.7</td>
</tr>
<tr>
<td></td>
<td>2011</td>
<td>3.7</td>
<td>1.5</td>
</tr>
<tr>
<td></td>
<td>2012F</td>
<td>3.0</td>
<td>1.0</td>
</tr>
<tr>
<td></td>
<td>2013F</td>
<td>2.6</td>
<td>0.9</td>
</tr>
<tr>
<td>EV/EBITDA (배)</td>
<td>2010</td>
<td>17.4</td>
<td>14.9</td>
</tr>
<tr>
<td></td>
<td>2011</td>
<td>22.5</td>
<td>17.6</td>
</tr>
<tr>
<td></td>
<td>2012F</td>
<td>13.4</td>
<td>11.6</td>
</tr>
<tr>
<td></td>
<td>2013F</td>
<td>10.3</td>
<td>9.4</td>
</tr>
<tr>
<td>ROE (%)</td>
<td>2010</td>
<td>24.2</td>
<td>14.0</td>
</tr>
<tr>
<td></td>
<td>2011</td>
<td>10.6</td>
<td>10.4</td>
</tr>
<tr>
<td></td>
<td>2012F</td>
<td>13.6</td>
<td>13.2</td>
</tr>
<tr>
<td></td>
<td>2013F</td>
<td>15.9</td>
<td>14.7</td>
</tr>
<tr>
<td>ROA (%)</td>
<td>2010</td>
<td>19.5</td>
<td>6.5</td>
</tr>
<tr>
<td></td>
<td>2011</td>
<td>8.7</td>
<td>4.4</td>
</tr>
<tr>
<td></td>
<td>2012F</td>
<td>10.5</td>
<td>4.9</td>
</tr>
<tr>
<td></td>
<td>2013F</td>
<td>12.3</td>
<td>5.9</td>
</tr>
</tbody>
</table>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정윤).
이 자료는 2012년 7월 4일에 공표할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수급 특징주

Daily / 2012년 7월 4일 (수)
조용식 (02) 3772-1598  ycc@shinhan.com

대림산업 (000210)
- 기관은 지속적인 순매도 이후 4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록. 특히 투신은 9일 연속 순매도 이후 2거래일 연속 순매수 전환
-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순매도 기록 중
- 신용진보는 1개월 전 4,287주에서 현재 4,662주로 큰 변화 없음
- 해외수주 지연과 2분기 실적둔화로 주가 부진했으나, 3분기 접어들면서 해외수주 확정 모멘텀과 벌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 특히 현재 PER는 6배 내외, PBR은 1배 이하로 가격 매력 보유

한화 (000880)
- 기관은 5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후 기금 / 은행을 중심으로 2거래일 연속 순매수 전환
- 외국인은 6월 이후 46억원 이상 순매수 기록 중
- 대차잔고는 최근 1개월 간 381.5만주에서 388.6만주로 큰 변화 없음
- 화재시인한화케미칼(009830)은 주기가 PBR 0.7배 수준으로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가 제한적인 가운데 유입 리스크 완화에 따른 달려약세로 업황 개선 기대. 한화건설의 성장성 또한 긍정적 요소

SK네트웍스 (001740)
- 기관은 최근 3거래일 연속, 6월 이후 58억원 이상 순매수 기록
- 외국인 또한 6월 초 43억원 가량 순매도 기록 이후 지속적인 매수 기조 유지하여 순매수 반전
- 대차잔고는 6월 초 300만주에서 270만주(총 발행주식 1.09%)로 감소
- 1) 스마트폰/고기판 판매비중 확대, 2) E&C컴퍼니 실적 개선, 3) T&I컴퍼니 석탄 사업부 인수 효과, 4) PM컴퍼니 중국/국내 성장 등으로 2분기 기점으로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영업실적 호조 기대

세아제강 (003030)
- 기관은 투신을 중심으로 8거래일 연속, 동기간 내 18억원 이상 순매수 기록
- 외국인은 6월 말 5거래일 연속 순매도 기록하였으나, 그 규모가 점차 감소해 현재 순매수 전환
- 대차잔고는 현재 9만주로 6월 초 9.1만주와 비교할 때 큰 변화 없음
- 설비확장에 따른 외형장기 지속 전망. 저평가된 주기에 따른 매력 부각될 것으로 기대

주) 본 편은 추천종목의 성격이 아니며 외국인 / 기관 매매동향을 통한 종목의 호흡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오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차트&수급 관심주

Daily / 2012년 7월 4일 (수)

거래량 급증 종목군

◆ 한진 (002320)
  - 거래량 증가하며 기관 매수 유입

◆ 동일 유형 종목군
  동국산업 (005160)
  시그네텍스 (033170)
  두산중공업 (034020)
  하이마트 (071840)

연속 양봉 종목군

◆ 유한양행 (000100)
  - 연속 양봉 3일이상

◆ 동일 유형 종목군
  대원강업 (000430)
  동아제약 (000640)
  LS네트웍스 (000680)
  한화 (000880)

신고가 종목군

◆ 동원산업 (006040)
  - 장중 52주 신고가

◆ 동일 유형 종목군
  녹십자 (006280)
  영원무역홀딩스 (009970)
  경동가스 (012320)
  일진디스플레이 (020760)

주) 본 린은 추천종목의 성격이 아니며 외국인/기관 매매동향을 통한 종목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오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기관 동반 순매수 종목 (단위: 주)

<table>
<thead>
<tr>
<th>KOSPI</th>
<th>외국인 / 기관 순매수</th>
<th>기관 순매수</th>
<th>KOSDAQ</th>
<th>외국인 / 기관 순매수</th>
<th>기관 순매수</th>
</tr>
</thead>
<tbody>
<tr>
<td>SK하이닉스</td>
<td>635,080</td>
<td>39,660</td>
<td>아스코닉</td>
<td>68,701</td>
<td>3,686</td>
</tr>
<tr>
<td>대우조선해양</td>
<td>267,240</td>
<td>757,020</td>
<td>STS반도체</td>
<td>46,570</td>
<td>5,537</td>
</tr>
<tr>
<td>KT</td>
<td>184,870</td>
<td>394,800</td>
<td>AP시스템</td>
<td>42,241</td>
<td>118,981</td>
</tr>
<tr>
<td>삼성중공업</td>
<td>145,780</td>
<td>443,000</td>
<td>킴투스</td>
<td>31,726</td>
<td>22,735</td>
</tr>
<tr>
<td>신한지주</td>
<td>123,010</td>
<td>207,560</td>
<td>KG이니시스</td>
<td>30,467</td>
<td>4,336</td>
</tr>
<tr>
<td>강원랜드</td>
<td>97,700</td>
<td>31,940</td>
<td>SK브로드밴드</td>
<td>18,460</td>
<td>46,099</td>
</tr>
<tr>
<td>삼성카드</td>
<td>89,870</td>
<td>19,290</td>
<td>동국산업</td>
<td>17,684</td>
<td>46,688</td>
</tr>
<tr>
<td>SK네트웍스</td>
<td>85,970</td>
<td>190,060</td>
<td>성우하이텍</td>
<td>17,550</td>
<td>18,512</td>
</tr>
</tbody>
</table>

연속 순매수 종목

<table>
<thead>
<tr>
<th>KOSPI</th>
<th>외국인 기관 누적 순매수</th>
<th>기관 누적 순매수</th>
<th>KOSDAQ</th>
<th>외국인 기관 누적 순매수</th>
<th>기관 누적 순매수</th>
</tr>
</thead>
<tbody>
<tr>
<td>게이머스</td>
<td>15일</td>
<td>OCI</td>
<td>11일</td>
<td>바이오매버</td>
<td>10일</td>
</tr>
<tr>
<td>한라건설</td>
<td>11일</td>
<td>한섬</td>
<td>14일</td>
<td>프레드로버</td>
<td>10일</td>
</tr>
<tr>
<td>JW홀딩스</td>
<td>11일</td>
<td>한전기술</td>
<td>14일</td>
<td>펜트론</td>
<td>9일</td>
</tr>
<tr>
<td>대교</td>
<td>10일</td>
<td>송원산업</td>
<td>11일</td>
<td>한국통신</td>
<td>8일</td>
</tr>
<tr>
<td>휴비스</td>
<td>8일</td>
<td>베이지하우스</td>
<td>11일</td>
<td>아고바</td>
<td>8일</td>
</tr>
<tr>
<td>현대양철</td>
<td>7일</td>
<td>LG화학</td>
<td>10일</td>
<td>삼리코엔트</td>
<td>7일</td>
</tr>
<tr>
<td>우리금융</td>
<td>6일</td>
<td>정은암</td>
<td>9일</td>
<td>오스템</td>
<td>7일</td>
</tr>
<tr>
<td>에너텍스</td>
<td>6일</td>
<td>한화케미칼</td>
<td>9일</td>
<td>로보스타</td>
<td>7일</td>
</tr>
</tbody>
</table>

누적순매수 상위종목 (억원, 금액기준)

<table>
<thead>
<tr>
<th>KOSPI</th>
<th>외국인 / 기관 5일간 누적 순매수</th>
<th>기관</th>
<th>KOSDAQ</th>
<th>외국인 / 기관 5일간 누적 순매수</th>
<th>기관</th>
</tr>
</thead>
<tbody>
<tr>
<td>한국전력</td>
<td>479.0</td>
<td>삼성전자</td>
<td>1,246.4</td>
<td>파트론</td>
<td>42.6</td>
</tr>
<tr>
<td>삼성전자</td>
<td>346.3</td>
<td>LG화학</td>
<td>1,224.9</td>
<td>게임빌</td>
<td>26.3</td>
</tr>
<tr>
<td>KT</td>
<td>260.2</td>
<td>호남석유</td>
<td>815.7</td>
<td>유진테크</td>
<td>21.8</td>
</tr>
<tr>
<td>엔씨소프트</td>
<td>257.7</td>
<td>OCI</td>
<td>669.1</td>
<td>외이자인터넷</td>
<td>21.2</td>
</tr>
<tr>
<td>KT&amp;G</td>
<td>228.3</td>
<td>금호석유</td>
<td>527.5</td>
<td>휴비츠</td>
<td>18.7</td>
</tr>
<tr>
<td>제일모직</td>
<td>225.6</td>
<td>삼성전자</td>
<td>443.7</td>
<td>매일유업</td>
<td>18.5</td>
</tr>
<tr>
<td>신한지주</td>
<td>171.3</td>
<td>두산중공업</td>
<td>366.4</td>
<td>성우하이텍</td>
<td>16.7</td>
</tr>
<tr>
<td>우리금융</td>
<td>167.9</td>
<td>KT</td>
<td>360.0</td>
<td>심리콘텍스</td>
<td>14.1</td>
</tr>
</tbody>
</table>

주) 본 룸은 추천종목의 성격이 아니며 차트를 통한 시장의 호흡을 조망하기 위한 목적이오니 투자판단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주체별 연속 순매수 (KOSPI)

<table>
<thead>
<tr>
<th>투신</th>
<th>은행</th>
<th>보험</th>
<th>연기금</th>
</tr>
</thead>
<tbody>
<tr>
<td>대우인테이셔널</td>
<td>17일</td>
<td>세아생명</td>
<td>25일</td>
</tr>
<tr>
<td>LG화성</td>
<td>13일</td>
<td>LG화성</td>
<td>9일</td>
</tr>
<tr>
<td>SK카지노</td>
<td>13일</td>
<td>KB생명</td>
<td>6일</td>
</tr>
<tr>
<td>현대자산운용</td>
<td>12일</td>
<td>현대</td>
<td>5일</td>
</tr>
<tr>
<td>송원산업</td>
<td>11일</td>
<td>삼성전자</td>
<td>5일</td>
</tr>
<tr>
<td>베이징하우스</td>
<td>11일</td>
<td>현대모비스</td>
<td>5일</td>
</tr>
<tr>
<td>한진중공업</td>
<td>10일</td>
<td>우리투자증권</td>
<td>4일</td>
</tr>
<tr>
<td>현대상실</td>
<td>10일</td>
<td>호남석유</td>
<td>4일</td>
</tr>
</tbody>
</table>

투자주체별 연속 순매수 (KOSDAQ)

<table>
<thead>
<tr>
<th>투신</th>
<th>은행</th>
<th>보험</th>
<th>연기금</th>
</tr>
</thead>
<tbody>
<tr>
<td>메디프론</td>
<td>7일</td>
<td>외국인</td>
<td>6일</td>
</tr>
<tr>
<td>서울반도체</td>
<td>6일</td>
<td>외국인</td>
<td>5일</td>
</tr>
<tr>
<td>대주전자재료</td>
<td>6일</td>
<td>태광</td>
<td>4일</td>
</tr>
<tr>
<td>예멘당</td>
<td>5일</td>
<td>성균관대</td>
<td>3일</td>
</tr>
<tr>
<td>인터파크</td>
<td>5일</td>
<td>피트론</td>
<td>2일</td>
</tr>
<tr>
<td>쇼트라온</td>
<td>4일</td>
<td>하이록코리아</td>
<td>2일</td>
</tr>
<tr>
<td>에스앤디전차</td>
<td>3일</td>
<td>컴퓨터</td>
<td>2일</td>
</tr>
<tr>
<td>씨티씨바이오</td>
<td>3일</td>
<td>골프존</td>
<td>2일</td>
</tr>
</tbody>
</table>

업종별 순매수 (억원, 금액 기준)

<table>
<thead>
<tr>
<th></th>
<th>KOSPI</th>
<th>KOSDAQ</th>
</tr>
</thead>
<tbody>
<tr>
<td>외국인</td>
<td>기관</td>
<td>외국인</td>
</tr>
<tr>
<td>전기기계</td>
<td>298.1 화학</td>
<td>인터넷</td>
</tr>
<tr>
<td>금융업</td>
<td>204.4 금융업</td>
<td>IT부품</td>
</tr>
<tr>
<td>보험업</td>
<td>162.4 철광금속</td>
<td>디지털컨텐츠</td>
</tr>
<tr>
<td>통신업</td>
<td>93.9 기계</td>
<td>유동</td>
</tr>
<tr>
<td>전기전자</td>
<td>69.2 건설업</td>
<td>금융</td>
</tr>
<tr>
<td>운수창고</td>
<td>26.2 통신회사</td>
<td>의료.정밀기기</td>
</tr>
<tr>
<td>후속주제</td>
<td>6.0 운수창고</td>
<td>소프트웨어</td>
</tr>
<tr>
<td>비금속</td>
<td>2.2 유통업</td>
<td>음식료.담배</td>
</tr>
</tbody>
</table>

주) 본 란은 추천종목의 성격이 아니며 차트를 통한 시장의 흐름을 조망하기 위한 목적이오니 투자판단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KOSPI (7월 3일)

<table>
<thead>
<tr>
<th>기관</th>
<th>외국인</th>
<th>개인</th>
<th>기타</th>
<th>기아차</th>
<th>LG화학</th>
<th>기아차</th>
<th>한국전력</th>
</tr>
</thead>
<tbody>
<tr>
<td>매도</td>
<td>10,572.0</td>
<td>9,981.3</td>
<td>25,704.9</td>
<td>1,683.3</td>
<td>3,783.9</td>
<td>2,005.2</td>
<td>1,815.7</td>
</tr>
<tr>
<td>매수</td>
<td>13,730.8</td>
<td>10,178.2</td>
<td>21,559.2</td>
<td>2,567.5</td>
<td>4,997.8</td>
<td>2,158.2</td>
<td>2,467.3</td>
</tr>
<tr>
<td>순매수</td>
<td>3,158.8</td>
<td>196.9</td>
<td>14,156.9</td>
<td>2,984.2</td>
<td>1,213.9</td>
<td>153.0</td>
<td>78.4</td>
</tr>
</tbody>
</table>

매도/매수 상위종목 (억원, 금액기준)

<table>
<thead>
<tr>
<th>국내기관</th>
<th>외국인</th>
</tr>
</thead>
<tbody>
<tr>
<td>순매도</td>
<td>순매수</td>
</tr>
<tr>
<td>기아차</td>
<td>693.4</td>
</tr>
<tr>
<td>현대차</td>
<td>306.8</td>
</tr>
<tr>
<td>삼성전자</td>
<td>328.1</td>
</tr>
<tr>
<td>기아차</td>
<td>213.6</td>
</tr>
<tr>
<td>삼성SDI</td>
<td>154.2</td>
</tr>
<tr>
<td>한화이악</td>
<td>133.6</td>
</tr>
<tr>
<td>현대투자증권</td>
<td>103.6</td>
</tr>
<tr>
<td>삼성SDI</td>
<td>96.5</td>
</tr>
<tr>
<td>삼성전자</td>
<td>77.7</td>
</tr>
</tbody>
</table>

KOSDAQ (7월 3일)

<table>
<thead>
<tr>
<th>기관</th>
<th>외국인</th>
</tr>
</thead>
<tbody>
<tr>
<td>매도</td>
<td>622.4</td>
</tr>
<tr>
<td>매수</td>
<td>714.6</td>
</tr>
<tr>
<td>순매수</td>
<td>92.1</td>
</tr>
</tbody>
</table>

매도/매수 상위종목 (억원, 금액기준)

<table>
<thead>
<tr>
<th>국내기관</th>
<th>외국인</th>
</tr>
</thead>
<tbody>
<tr>
<td>순매도</td>
<td>순매수</td>
</tr>
<tr>
<td>위메이드</td>
<td>33.4</td>
</tr>
<tr>
<td>외이지엔테이먼트</td>
<td>23.9</td>
</tr>
<tr>
<td>피디하이시스</td>
<td>21.3</td>
</tr>
<tr>
<td>음악PS</td>
<td>18.6</td>
</tr>
<tr>
<td>와이아츠원</td>
<td>14.8</td>
</tr>
<tr>
<td>네플스</td>
<td>13.5</td>
</tr>
<tr>
<td>유진테크</td>
<td>13.3</td>
</tr>
<tr>
<td>인터볼텍스</td>
<td>10.3</td>
</tr>
<tr>
<td>에스에프에이</td>
<td>10.2</td>
</tr>
<tr>
<td>테라세미콘</td>
<td>9.2</td>
</tr>
</tbody>
</table>

KOSPI 외국인 업종별 동향

KOSPI 기관 업종별 동향
국내증시 업종별 등락률 비교

전일 등락률 (KOSPI)

1개월 등락률 (KOSPI)

글로벌 증시 등락률 비교

MSCI 지역지수 1개월 등락률

MSCI 산업지수 1개월 등락률

글로벌 주요증시 1개월 등락률

자료: Bloomberg
주요 환율, 금리

<table>
<thead>
<tr>
<th>(pt, %, bp)</th>
<th>전일종가</th>
<th>전일비</th>
<th>1개월</th>
<th>3개월</th>
</tr>
</thead>
<tbody>
<tr>
<td>원/달러</td>
<td>1,138.29</td>
<td>0.68</td>
<td>3.84</td>
<td>-1.44</td>
</tr>
<tr>
<td>원엔</td>
<td>14.26</td>
<td>1.09</td>
<td>5.82</td>
<td>-4.99</td>
</tr>
<tr>
<td>DOLLAR INDEX</td>
<td>81.88</td>
<td>0.01</td>
<td>-1.22</td>
<td>3.01</td>
</tr>
<tr>
<td>달러유로</td>
<td>1.26</td>
<td>0.08</td>
<td>0.70</td>
<td>-4.89</td>
</tr>
<tr>
<td>엔달러</td>
<td>79.83</td>
<td>-0.40</td>
<td>-1.87</td>
<td>3.73</td>
</tr>
<tr>
<td>위안달러</td>
<td>6.35</td>
<td>-0.06</td>
<td>0.18</td>
<td>-1.04</td>
</tr>
</tbody>
</table>

주: 환율 관련 지표는 기간 내 변화율(%), 채권 관련 지표는 기간 내 변화의 절대값(bp)을 나타낸다

자료: Bloomberg
상품가격

<table>
<thead>
<tr>
<th>상품</th>
<th>전일종가</th>
<th>전일비 (%)</th>
<th>1개월 전일비</th>
<th>3개월 전일비</th>
</tr>
</thead>
<tbody>
<tr>
<td>CRB 저수</td>
<td>284.21</td>
<td>0.01</td>
<td>5.93</td>
<td>-8.54</td>
</tr>
<tr>
<td>LME METAL</td>
<td>3,238.10</td>
<td>-0.42</td>
<td>1.47</td>
<td>-10.99</td>
</tr>
<tr>
<td>WTI</td>
<td>85.28</td>
<td>1.83</td>
<td>2.46</td>
<td>-18.01</td>
</tr>
<tr>
<td>브렌트유</td>
<td>99.07</td>
<td>1.78</td>
<td>0.65</td>
<td>-20.66</td>
</tr>
<tr>
<td>두바이유</td>
<td>96.14</td>
<td>2.64</td>
<td>-1.18</td>
<td>-21.20</td>
</tr>
<tr>
<td>체도유</td>
<td>113.05</td>
<td>0.85</td>
<td>-0.51</td>
<td>-17.48</td>
</tr>
<tr>
<td>천연가스</td>
<td>2.84</td>
<td>0.71</td>
<td>22.27</td>
<td>30.04</td>
</tr>
<tr>
<td>니프타</td>
<td>86.11</td>
<td>2.51</td>
<td>0.51</td>
<td>-25.99</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상품</th>
<th>전일종가</th>
<th>전일비 (%)</th>
<th>1개월 전일비</th>
<th>3개월 전일비</th>
</tr>
</thead>
<tbody>
<tr>
<td>밀</td>
<td>759.25</td>
<td>0.63</td>
<td>24.01</td>
<td>15.39</td>
</tr>
<tr>
<td>금</td>
<td>1,609.53</td>
<td>0.78</td>
<td>-0.90</td>
<td>-2.22</td>
</tr>
<tr>
<td>구리</td>
<td>7,625.00</td>
<td>-0.78</td>
<td>3.59</td>
<td>-11.76</td>
</tr>
<tr>
<td>알루미늄</td>
<td>1,909.00</td>
<td>-0.10</td>
<td>-3.22</td>
<td>-10.38</td>
</tr>
<tr>
<td>이연</td>
<td>1,872.00</td>
<td>-0.27</td>
<td>-0.95</td>
<td>-6.73</td>
</tr>
<tr>
<td>BDI</td>
<td>1,013.00</td>
<td>0.90</td>
<td>12.06</td>
<td>8.46</td>
</tr>
<tr>
<td>DRAM</td>
<td>3,254.36</td>
<td>0.05</td>
<td>0.39</td>
<td>1.93</td>
</tr>
<tr>
<td>NAND</td>
<td>2.70</td>
<td>0.00</td>
<td>-0.37</td>
<td>-0.37</td>
</tr>
</tbody>
</table>

CRB vs. LME Metal

구리 vs. 알루미늄

밀 vs. 옥수수

BDI vs. 금

DRAM vs. NAND

자료: Bloomberg
증시자금 및 거래지표

<table>
<thead>
<tr>
<th></th>
<th>2011년말</th>
<th>6/27 (수)</th>
<th>6/28 (목)</th>
<th>6/29 (금)</th>
<th>7/02 (월)</th>
<th>7/03 (화)</th>
</tr>
</thead>
<tbody>
<tr>
<td>KOSPI지수 추이</td>
<td>등락</td>
<td>1,825.74</td>
<td>1,817.65</td>
<td>1,819.18</td>
<td>1,854.01</td>
<td>1,851.65</td>
</tr>
<tr>
<td>거래량</td>
<td>(만주)</td>
<td>34,648</td>
<td>31,948</td>
<td>30,512</td>
<td>32,063</td>
<td>27,363</td>
</tr>
<tr>
<td>거래대금</td>
<td>(억원)</td>
<td>36,321</td>
<td>43,087</td>
<td>30,905</td>
<td>43,916</td>
<td>36,086</td>
</tr>
<tr>
<td>상장사가총액</td>
<td>(조원)</td>
<td>1,041.9</td>
<td>1,046.8</td>
<td>1,068.3</td>
<td>1,068.3</td>
<td>1,066.7</td>
</tr>
<tr>
<td>상장자본금</td>
<td>(조원)</td>
<td>102.9</td>
<td>104.7</td>
<td>104.7</td>
<td>104.8</td>
<td>104.8</td>
</tr>
<tr>
<td>KOSPI200 P/E*</td>
<td>(배)</td>
<td>11.3</td>
<td>11.4</td>
<td>11.4</td>
<td>11.4</td>
<td>11.6</td>
</tr>
<tr>
<td>등락중목수</td>
<td>상승</td>
<td>339(6)</td>
<td>383(7)</td>
<td>593(5)</td>
<td>469(7)</td>
<td>529(9)</td>
</tr>
<tr>
<td></td>
<td>하락</td>
<td>467(2)</td>
<td>402(2)</td>
<td>248(0)</td>
<td>344(1)</td>
<td>285(0)</td>
</tr>
<tr>
<td>주가이동평균</td>
<td>5일</td>
<td>1,839.48</td>
<td>1,825.48</td>
<td>1,826.81</td>
<td>1,832.06</td>
<td>1,842.06</td>
</tr>
<tr>
<td></td>
<td>20일</td>
<td>1,849.36</td>
<td>1,848.07</td>
<td>1,848.60</td>
<td>1,849.46</td>
<td>1,853.69</td>
</tr>
<tr>
<td></td>
<td>60일</td>
<td>1,914.08</td>
<td>1,910.83</td>
<td>1,907.91</td>
<td>1,904.61</td>
<td>1,906.83</td>
</tr>
<tr>
<td></td>
<td>120일</td>
<td>1,944.87</td>
<td>1,944.40</td>
<td>1,944.29</td>
<td>1,944.19</td>
<td>1,944.40</td>
</tr>
<tr>
<td></td>
<td>240일</td>
<td>1,911.35</td>
<td>1,910.14</td>
<td>1,908.99</td>
<td>1,907.83</td>
<td>1,906.68</td>
</tr>
<tr>
<td>거래량이동평균</td>
<td>5일</td>
<td>32,297</td>
<td>30,596</td>
<td>31,086</td>
<td>30,734</td>
<td>31,432</td>
</tr>
<tr>
<td></td>
<td>20일</td>
<td>38,487</td>
<td>37,927</td>
<td>37,313</td>
<td>37,009</td>
<td>36,775</td>
</tr>
<tr>
<td>이격도</td>
<td>5일</td>
<td>98.81</td>
<td>99.65</td>
<td>101.49</td>
<td>101.07</td>
<td>101.40</td>
</tr>
<tr>
<td></td>
<td>20일</td>
<td>98.29</td>
<td>98.44</td>
<td>100.29</td>
<td>100.12</td>
<td>100.76</td>
</tr>
<tr>
<td>투자심리선</td>
<td>10일</td>
<td>40</td>
<td>40</td>
<td>50</td>
<td>40</td>
<td>40</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th>
<th>2011년말</th>
<th>6/27 (수)</th>
<th>6/28 (목)</th>
<th>6/29 (금)</th>
<th>7/02 (월)</th>
<th>7/03 (화)</th>
</tr>
</thead>
<tbody>
<tr>
<td>KOSDAQ지수 추이</td>
<td>등락</td>
<td>500.18</td>
<td>483.03(-1.31)</td>
<td>485.91(+2.88)</td>
<td>489.16(+3.25)</td>
<td>490.43(+1.27)</td>
</tr>
<tr>
<td>거래량</td>
<td>(만주)</td>
<td>48,872</td>
<td>67,810</td>
<td>71,020</td>
<td>63,074</td>
<td>56,484</td>
</tr>
<tr>
<td>거래대금</td>
<td>(억원)</td>
<td>24,168</td>
<td>17,134</td>
<td>17,351</td>
<td>17,066</td>
<td>16,335</td>
</tr>
<tr>
<td>시가총액</td>
<td>(조원)</td>
<td>105.9</td>
<td>103.0</td>
<td>106.0</td>
<td>106.0</td>
<td>106.4</td>
</tr>
<tr>
<td>등록자본금</td>
<td>(조원)</td>
<td>12.9</td>
<td>12.8</td>
<td>12.8</td>
<td>12.9</td>
<td>12.9</td>
</tr>
<tr>
<td>스타지수 P/E*</td>
<td>(배)</td>
<td>16.4</td>
<td>16.93</td>
<td>16.93</td>
<td>17.23</td>
<td>17.18</td>
</tr>
<tr>
<td>등락중목수</td>
<td>상승</td>
<td>421(25)</td>
<td>484(21)</td>
<td>597(15)</td>
<td>523(25)</td>
<td>612(26)</td>
</tr>
<tr>
<td></td>
<td>하락</td>
<td>511(3)</td>
<td>442(0)</td>
<td>345(2)</td>
<td>390(2)</td>
<td>319(1)</td>
</tr>
<tr>
<td>주가이동평균</td>
<td>5일</td>
<td>484.44</td>
<td>484.58</td>
<td>485.38</td>
<td>486.57</td>
<td>488.49</td>
</tr>
<tr>
<td></td>
<td>20일</td>
<td>473.10</td>
<td>473.92</td>
<td>474.78</td>
<td>475.69</td>
<td>477.85</td>
</tr>
<tr>
<td></td>
<td>60일</td>
<td>482.01</td>
<td>481.45</td>
<td>480.91</td>
<td>480.49</td>
<td>480.33</td>
</tr>
<tr>
<td></td>
<td>120일</td>
<td>504.99</td>
<td>504.75</td>
<td>504.53</td>
<td>504.26</td>
<td>504.06</td>
</tr>
<tr>
<td></td>
<td>240일</td>
<td>496.96</td>
<td>496.94</td>
<td>496.92</td>
<td>496.89</td>
<td>496.84</td>
</tr>
<tr>
<td>거래량이동평균</td>
<td>5일</td>
<td>63,510</td>
<td>65,244</td>
<td>65,290</td>
<td>64,489</td>
<td>65,688</td>
</tr>
<tr>
<td></td>
<td>20일</td>
<td>60,023</td>
<td>60,984</td>
<td>61,450</td>
<td>61,809</td>
<td>62,529</td>
</tr>
<tr>
<td>이격도</td>
<td>5일</td>
<td>99.71</td>
<td>100.27</td>
<td>100.78</td>
<td>100.79</td>
<td>101.11</td>
</tr>
<tr>
<td></td>
<td>20일</td>
<td>102.10</td>
<td>102.53</td>
<td>103.03</td>
<td>103.10</td>
<td>103.36</td>
</tr>
<tr>
<td>투자심리선</td>
<td>10일</td>
<td>60</td>
<td>60</td>
<td>70</td>
<td>70</td>
<td>70</td>
</tr>
</tbody>
</table>

* P/E 배수는 10월 14일부터 최근 반기실적 반영치로 수정
증시자금 및 거래지표

증시자금 추이

<table>
<thead>
<tr>
<th>연도</th>
<th>6/27(수)</th>
<th>6/28(목)</th>
<th>6/29(금)</th>
<th>7/02(월)</th>
<th>7/03(화)</th>
</tr>
</thead>
<tbody>
<tr>
<td>고객예탁금(억원)</td>
<td>179,709</td>
<td>171,808-</td>
<td>170,306</td>
<td>163,580</td>
<td>167,769</td>
</tr>
<tr>
<td>실질고객예탁금 증감** (억원)</td>
<td>-1,567</td>
<td>-2,950</td>
<td>-1,502</td>
<td>-6,726</td>
<td>4,189</td>
</tr>
<tr>
<td>신용잔고** (억원)</td>
<td>52,621</td>
<td>40,086</td>
<td>40,404</td>
<td>40,553</td>
<td>40,416</td>
</tr>
<tr>
<td>미수금 (억원)</td>
<td>1,969</td>
<td>1,885-</td>
<td>1,830</td>
<td>1,471</td>
<td>1,288</td>
</tr>
</tbody>
</table>

** 신용잔고는 2004년 8월 2일부터 거래소와 코스닥 합산 수치
*** 실질고객예탁금 증감 = (고객예탁금 증감 − (D-2일 개인투자자 순매수 금액) − (신용융자+미수금 증감)

거래비중 추이

<table>
<thead>
<tr>
<th>연도</th>
<th>6/27(수)</th>
<th>6/28(목)</th>
<th>6/29(금)</th>
<th>7/02(월)</th>
<th>7/03(화)</th>
</tr>
</thead>
<tbody>
<tr>
<td>KOSPI 거래대금 중 개인 (%)</td>
<td>46.32</td>
<td>44.86</td>
<td>49.44</td>
<td>44.17</td>
<td>51.32</td>
</tr>
<tr>
<td>KOSPI 거래대금 중 외국인 (%)</td>
<td>24.77</td>
<td>24.87</td>
<td>24.16</td>
<td>25.75</td>
<td>22.01</td>
</tr>
<tr>
<td>KOSPI 거래대금 중 기관 (%)</td>
<td>24.77</td>
<td>24.50</td>
<td>21.63</td>
<td>23.95</td>
<td>20.76</td>
</tr>
</tbody>
</table>

연간 고객예탁금 누적증감 vs. 연간 실질 고객예탁금 누적증감

신용잔고 vs. 미수금

연간 고객예탁금 누적증감 vs. 연간 실질 고객예탁금 누적증감

신용잔고 vs. 미수금

거래비중 추이

<table>
<thead>
<tr>
<th>연도</th>
<th>6/27(수)</th>
<th>6/28(목)</th>
<th>6/29(금)</th>
<th>7/02(월)</th>
<th>7/03(화)</th>
</tr>
</thead>
<tbody>
<tr>
<td>KOSPI 거래대금 중 개인 (%)</td>
<td>46.32</td>
<td>44.86</td>
<td>49.44</td>
<td>44.17</td>
<td>51.32</td>
</tr>
<tr>
<td>KOSPI 거래대금 중 외국인 (%)</td>
<td>24.77</td>
<td>24.87</td>
<td>24.16</td>
<td>25.75</td>
<td>22.01</td>
</tr>
<tr>
<td>KOSPI 거래대금 중 기관 (%)</td>
<td>24.77</td>
<td>24.50</td>
<td>21.63</td>
<td>23.95</td>
<td>20.76</td>
</tr>
</tbody>
</table>

양시장 거래대금 추이

<table>
<thead>
<tr>
<th>연도</th>
<th>6/27(수)</th>
<th>6/28(목)</th>
<th>6/29(금)</th>
<th>7/02(월)</th>
<th>7/03(화)</th>
</tr>
</thead>
</table>
| KOSPI 등락률과 프로그램 매매비중 추이

<table>
<thead>
<tr>
<th>연도</th>
<th>6/27(수)</th>
<th>6/28(목)</th>
<th>6/29(금)</th>
<th>7/02(월)</th>
<th>7/03(화)</th>
</tr>
</thead>
<tbody>
<tr>
<td>자료: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1일 지연 / 2011년 말 기준</td>
<td>자료: 코스콤, 1일 지연</td>
<td>자료: 한국거래소</td>
<td>자료: 한국거래소</td>
<td></td>
<td></td>
</tr>
<tr>
<td>월</td>
<td>역</td>
<td>회</td>
<td>수</td>
<td>목</td>
<td>금</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td>
<td>예결유리</td>
<td>임시주총</td>
<td>(A008420)</td>
<td>기준일</td>
<td>(A020150)</td>
</tr>
<tr>
<td></td>
<td></td>
<td></td>
<td>(A020150)</td>
<td>기준일</td>
<td>(A020150)</td>
</tr>
<tr>
<td>4</td>
<td>소셜미디어99</td>
<td>임시주총</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r>
<td>5</td>
<td>CS철강종합</td>
<td>임시주총</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r>
<td>6</td>
<td>레드로버</td>
<td>유상</td>
<td>(A003000)</td>
<td>기준일</td>
<td>(A003000)</td>
</tr>
<tr>
<td>7</td>
<td>예결유리</td>
<td>임시주총</td>
<td>(A008420)</td>
<td>기존일</td>
<td>(A020150)</td>
</tr>
<tr>
<td>8</td>
<td></td>
<td></td>
<td>(A020150)</td>
<td>기준일</td>
<td>(A020150)</td>
</tr>
<tr>
<td>9</td>
<td>동북아6호</td>
<td>임시주총</td>
<td>(A008420)</td>
<td>기존일</td>
<td>(A020150)</td>
</tr>
<tr>
<td>10</td>
<td>전상당물류</td>
<td>유상</td>
<td>(A003890)</td>
<td>기존일</td>
<td>(A003890)</td>
</tr>
<tr>
<td>11</td>
<td>엑세스아이오</td>
<td>임시주총</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r>
<td>12</td>
<td>특허</td>
<td>유상</td>
<td>(A103800)</td>
<td>기존일</td>
<td>(A103800)</td>
</tr>
<tr>
<td>13</td>
<td>우리파이낸셜</td>
<td>유상</td>
<td>(A003890)</td>
<td>기존일</td>
<td>(A003890)</td>
</tr>
<tr>
<td>14</td>
<td>우리파이낸셜</td>
<td>유상</td>
<td>(A003890)</td>
<td>기존일</td>
<td>(A003890)</td>
</tr>
<tr>
<td>15</td>
<td>중국목재</td>
<td>임시주총</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r>
<td>16</td>
<td></td>
<td></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r>
<td>17</td>
<td></td>
<td></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r>
<td>18</td>
<td></td>
<td></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r>
<td>19</td>
<td></td>
<td></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r>
<td>20</td>
<td></td>
<td></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r>
<td>21</td>
<td></td>
<td></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r>
<td>22</td>
<td></td>
<td></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r>
<td>23</td>
<td></td>
<td></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r>
<td>24</td>
<td></td>
<td></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r>
<td>25</td>
<td></td>
<td></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r>
<td>26</td>
<td></td>
<td></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r>
<td>27</td>
<td></td>
<td></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r>
<td>28</td>
<td></td>
<td></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r>
<td>29</td>
<td></td>
<td></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r>
<td>30</td>
<td></td>
<td></td>
<td>(A002890)</td>
<td>기존일</td>
<td>(A002890)</td>
</tr>
</tbody>
</table>

1. 유, 무상 배정비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국민 공시 및 전자공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책동원, 감정전, 소란, 공적, 감정전, 감정전). 당사는 상기 삼성전자 목, 디스플레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ELW을 발행하였으며, 유동성 공급회사(LP)를 고지합니다. 

---

2012년 7월 증시일정표

2012. 6. 25 현재
진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DR, CB, IPO 등) 발행과 관련하여 대표 주간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한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